

2023
03

Printing Journal
인쇄저널



k·print 2023

KIPES 2023
제26회 국제 인쇄기자재전시회

K LABEL 2023
한국레이블전시회

K PACK 2023
한국패키징전시회

K DIGITAL PRINT 2023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 TEXTILE 2023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 SIGN & AD 2023
한국사인·광고전시회

2023. 8. 23 수 - 26 토
KINTEX 제2전시장

주최
한국이앤엑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인쇄연구소 /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The Printing Press, 인쇄가, PRINTINGTRENDS, 프리팅트렌드, 사인문화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E-mail. kprint@kprint.kr

www.kprint.kr



Contents

등록번호 424호 | 월간 | 비매품 | 1990년 3월 23일 등록
발행인·편집인 김윤중 | 발행일 매월 10일
편집위원장 류영식 | 편집위원 전준호, 조을기, 채연화
실무 기획홍보팀(오혜경, 김현택) 02. 333. 8631(내선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쌍림동 146-1)
www.spiic.or.kr
인쇄·디자인·DM 에스아이디엠 02. 822. 5114

SIDM 인쇄·디자인·DM발송·한국형 3D 팝업카드 Total Company

DM발송대행 / 정기간행물발송 / 사보,사외보,서적 전문발송 / 각종 소포,택배 포장발송 / 소량 및 다량우편물 포장발송 / 해외 포장발송 / 각종 봉투제작 / 다품종 칼라 디지털인쇄 / 개인가변화 디자인 및 인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7길 9 SIDM
TEL 02. 822. 5114 | FAX 02. 822. 4414
홈페이지 www.sidm.co.kr | 인쇄소핑몰 www.dmprint.co.kr
3D 입체카드 www.leeumdream.com

4 **이사장 선거**
· 김윤중 동호커뮤니케이션 대표, 제27대 이사장 당선

8 **새로운 소식 I**
· 2023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 김윤중 이사장, 김길성 중구청장 면담
·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 50년 만에 일반공개

10 **새로운 소식 II**
· 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순회설명회 개최
· 서울시, 「서울시 소공인 지원포탈」로 도시형 소공인 지원
·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11 **Notice**
· 조합원 동정 의

12 **이슈**
· 대한인쇄문화협회, 제44대 김병순 회장 당선

14 **클로즈업 I**
· 인쇄연합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 이사 2명 보선, 고수근·이충원 전임 회장 명예회장, 고문으로 추대
· 제27대 중기중앙회장에 김기문 現 회장 연임
· 제61회 중기중앙회 정기총회, 364명 참석... 만장일치 추대
· 한국제지, 소상공인 카페들과 함께 그린실드 친환경 프로모션 진행

16 **클로즈업 II**
· interpack(인터팩) 2023, 오는 5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
· 5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개최

18 **경영정보**
· 경영인을 위한 2023 경제 전망 ②
· 2023년 3대 경영환경 이슈

20 **지식의 샘**
· 2023년 3월 추천도서
·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 버블 경제학
· <2023 서울라이트 DDP: 장소의 순환>
· 동대문의 역사를 미디어아트로 만나다

[제61회 정기총회]
김윤중 동호커뮤니케이션 대표,
제27대 이사장 당선

총 614표 중 375표 득표

제61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1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선거에서 김윤중 후보가 제2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1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59~60회 정기총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약식 개최된 바 있다. 만 3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정기총회는 제26대 김남수 이사장의 4년 간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7대 이사장 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는 인쇄단체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등 각계 내빈들과 66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임 이사장 선출 전까지 총회를 주재한 김남수 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27대 신임 이사장과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발전해 나가는 조합이 되길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남수 전 이사장은 “25대 이사장에 이어서 26대 이사장을 연임한 지난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며 지난 임기의 소회를 전하면서 “△인쇄산업의 발전 △조합원 권익보호 △조합원 역량제고 및 인쇄산업 비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력해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8년간 조합발전에 헌신해주신 이사님들과 각 분과위원장, 각종 위원회 위원, 4부회 간사장 및 간사님들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면서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진을 중심으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 부의된 10건의 안건 중 △2022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 결의안 △2022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결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결의안 등 9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제7호 안건인 ‘총회 결의사항 중 이사회 위임 결의안’ 중 정관 제29조 10항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의 건’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총회에서 결



제61회 정기총회 전경

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의안인 제10호 ‘임원 선출(이사장, 이사, 감사)’의 건은 두 후보의 정견발표를 거친 후 이사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 결과는 유효투표수 614표 중 기호 1번 이영수 후보가 239표, 기호 2번 김윤중 후보가 375표를 얻어 136표 차로 김윤중 후보가 제27대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김윤중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 “조합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저의 초심이자 동력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조합원님들께서 화합하고자 하는 열망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하며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고민하고 행동해야만 우리 인쇄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인쇄업계의 한숨과 우리 소공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중 신임 이사장과 김남수 전임 이사장



제27대 이사장 선거 개표현장



총회를 주재하는 김윤중 이사장

제27대 김윤중 이사장 주요 공약사항

1. 대형 대학병원과 MOU 체결
2. 인쇄인 한마당 가족의 밤 개최
3. 인쇄기준요금 마련
4. 서울특별시 지역인쇄 진흥 조례 제정
5. 외국인 연수생 확보 및 인쇄기술인 양성
6. 조합원 이익을 위해 조합원 수 확대



당선소감을 발표하는 김윤중 이사장

제61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공로패
김윤중 동호커뮤니케이션 대표
곽효섭 효인피앤피 대표
서울특별시 표창
㈜더숨씨 강형석 대표이사
㈜제이스타매니지먼트솔루션 안영주 대표이사
주식회사 케이에스센세이션 김민주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삼아인쇄사 김상호 대표
송죽문화사 장세훈 대표
제일사 이강호 대표
㈜지성토탈 김상희 대표이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경남라미네이팅종합인쇄 신수득 대표
대성사P&T 장순례 대표
문덕카렌다 김상만 대표
삼정인쇄공사3 정순례 대표
유림씨앤피 서동열 대표
서울지방조달청장 표창
㈜상지피앤아이 이창래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그레이스 양혜경 대표
태성문화사 김영식 대표
㈜프린파크 최양우 대표이사

대한인쇄문화산업협동조합연합회 표창
㈜명진씨앤피 최영무 대표이사
지구상사 문재왕 대표
㈜진프로세스 고성진 대표이사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우수경영자
㈜디자인콘 최이원 대표이사
오리엔스 이종현 대표
유니아트 이종국 대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모범종업원
글로벌로지스틱 서혜원 과장
㈜더씨엠와이 백재성 기장
동성특수인쇄 전성진 과장
삼성엘리트인쇄(주) 황호경 부장
삼성인쇄지공업사 조성분 상무
㈜상현원색 강현진 부장
㈜유진프린팅 신현자 과장
㈜포유프린팅 강덕호 차장
㈜현대아트컴 이희완 공장장
화신문화(주) 김연식 차장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감사패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객진화 과장
(사)농민신문사 간행사업부 강병규 대리
(사)농민신문사 장표사업부 김민지 대리

모범조합원 및 유관기관 포상자



서울특별시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대한인쇄문화산업협동조합연합회 표창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우수경영자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감사패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공로패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모범종업원 (1)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모범종업원 (2)

Printing Journal NEWS

3
MARCH

2023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지난 2월 8일 호텔PJ 4층 카라디움홀에서 2023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김남수 이사장은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던 26대 집행부의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였던 지난 4년간 이사님들과 조합원님들의 성원으로 △정부에 코로나 대책 요청 △가격상승 통보에 대응하여 잉크, 제지업계와의 소통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쇄물 제값받기 기틀 마련 등 여러 사업을 추

진할 수 있었다”며 지난 4년의 소회를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회 부의안건 10건과 이사회 부의안건 2건을 검토·가결했다.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이사회 부의안건인 제11호 의안 ‘규정 중 일부 개정 결의안’의 경우 제27대 이사회 선거에 맞춰 임원선거 관련 규정·요령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우리 조합의 상위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도조치에 따라 선관위가 개정 철회 의사를 밝혀 이사회 전원의 동의하에 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조합 이사진·감사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원을 충족했다.

김윤중 이사장, 김길성 중구청장 면담 인쇄업계 현안 논의, 중구 경제발전 함께 노력



김윤중 이사장은 지난 2월 27일 청장실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을 만나 조합과의 협력방안 등 인쇄업계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 김윤중 이사장은 “중구는 우리 인쇄인들에게 주자소 터가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쇄물의 완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업종 간 협업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야 하는 공간이지만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인쇄산업진흥 조례 제정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인쇄박물관 건립 등 인쇄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구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길성 중구청장은 “스마트앵커 건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건물 내에 인쇄산업지원센터를 마련해 인쇄업계를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지원 형태로 인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인쇄조합에서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상생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MOU 체결을 통해 인쇄산업 지원 시설, 인쇄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 50년 만에 일반공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4월 12일부터 공개



우리나라 인쇄사의 자긍심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금속활자 인쇄본이 50년 만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반 공개된다.

현재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 중인 직지 판본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이듬해(1378년) 목판으로 다시 찍어낸 것이다.

직지가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00년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였다. 가장 가까운 대중 공개는 지난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여 열린 ‘책(BOOKS)’ 전시회로, 이후 대중이 자유롭게 관람 가능한 형태로 전시된 사례는 없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국내 기관들은 한국에서의 전시를 추진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직지가 전시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는 4월 12일(현지 기준)부터 7월 16일까지 열린다.



Notice

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순회설명회 개최 앞으로 30회 이상 순회설명회를 연이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2월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회 이상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약 4,000명 이상의 기업이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되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시 소공인 지원포털」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인쇄업을 포함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정보·지원 정책 제공

도시형 소공인, 창업희망자, 취업희망자가 알고 싶은 정보와 지원정책을 총망라하는 ‘서울시 소공인 지원 포털’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쇄업을 포함 업종별 교육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 서울시 소공인 지원 통합플랫폼에서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을 통한 판로 확보, 자동화기기 이용방법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시형 소

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시설 29개소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 소공인지원포털의 운영원칙은 ‘업종별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제조업의 95%를 차지하는 도시형 소공인이 성장기회를 찾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경쟁력 강화

제조업 중소기업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이 3월 2일부터 지역별로 공고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에게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기업 전체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서류 제출 후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급받는 방식이며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12개 프로그램 중에서 최대 3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1811-3655)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인쇄대백과」 구매 안내



조합은 변화하는 인쇄산업의 흐름을 담아내고, 용어의 명확한 의미 부재로 인한 인쇄업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문제를 불식,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의 밝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5일 「인쇄대백과」를 발간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의 밝은 미래를 향한 지침서’인 「인쇄대백과」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인쇄조합 총무관리팀 유현숙 과장(02-333-8631 내선번호 237)에게 문의바랍니다.

「인쇄대백과」 특징

「인쇄대백과」는 인쇄용어사전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쇄용어사전은 인쇄용어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용어사전에는 서구 인쇄의 선구자 ‘구텐베르크’, 직지대모 ‘박병선’ 등 주요 인물과 ‘인쇄문화의 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4차 산업혁명’ 등 인쇄인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대한민국 및 세계 인쇄의 발달사, 인쇄골목의 형성과정, 종이의 규격과 인쇄기법, 업계에서 외래어로 통용되고 있는 인쇄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우리말 인쇄용어 등 인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경 사항
디자인생선가게(주)	강남구 논현로155길 11, 5층 (신사동)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7, 503호(성수동2가)	주소
전광인쇄정보(주)	강서구 마곡서로 158, 910호(마곡동)	강서구 공향대로59다길 199, 4층(염창동)	
상신문화인쇄사	용산구 두텁바위로1가길 12	중구 퇴계로 197, 410호(필동2가, 충무빌딩)	
(주)천재교육	오병목	강희철	대표
(주)프린피아	오병목, 서동일	서동일	

▶ 결혼

- 스페이스신정 최영만 대표의 아들 승태군이 2월 19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애드컴서울 한상헌 대표의 아들 한웅군이 2월 25일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덕유문화미술사 주정훈 대표의 아들 한규 군이 2월 25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부고

- 에스아이디엠 이주환 대표의 모친께서 2월 19일 별세하셨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제44대 김병순 회장 당선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병순 신임 회장과 원종철 전임 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2월 22일 호텔PJ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병순 상일전산품(주) 대표가 만장일치로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월 22일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병순, 이하 인협)는 호텔PJ 카라디움홀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상일전산품(주) 김병순 대표가 제44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기총회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원종철 전 회장은 “3년 전 이 자리에서 제4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 바로 한국인쇄진흥재단의 설립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인쇄진흥재단은 정부

기관과 후속 작업 및 협조 중에 있으며, 내년 무렵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쇄진흥재단의 역할과 장학 사업·인쇄장인 선발 등 인협의 지난 사업들을 설명한 원종철 전 회장은 “퇴임 후에도 앞으로 협회와 한국인쇄진흥재단 발전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겠다”고 개회사를 끝마쳤다. 이날 정기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승인 △2022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자(주대원인크화학 김성미 대표이사)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표창 수상자

대한인쇄문화협회 제75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주대원인크화학 김성미 대표이사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표창
국제인쇄(주)기업부설연구소 손재환 연구소장
네오프린텍(주)인쇄팀 박정철 기장
주동부피앤비 제작관리부 정현규 과장
동아출판(주) 생산팀 유재명 기술차장
두두피앤피 생산부 김민규 이사
벽호 운전사업팀 박희준 기장
주상림 영업부 심도석 부장
상일전산품(주) 생산관리부 양숙희 과장
주타라유통 물류서비스팀 김종권 팀장
주타라티피에스 국내사업본부 이현수 매니저
주테라박스 생산팀 이상규 사원
주프린피아 인쇄팀 오동주 과장
한국하이델베르크(주) 기술부 현인철 부장

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이사회 위임사항 승인 △임원선출로 총 5건이 상정됐다. 이 중 제44대 회장을 선출하는 제5호 의안을 제외한 4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44대 회장 및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제5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월 11일까지 상일전산품(주) 김병순 대표가 단독 출마함에 따라 임원선출에 관한 인협 규정에 의거 투표 없이 후보의 공약사항과 포부를 담은 후보자의 정견발표 이후 진행된 인준에서 김병순 후보자는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인협 제44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병순 회장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에 협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제43대 원종철 회장님과 여러 임원님, 임원선출을 위해 애써주신 김영길 선거관리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과 단결만이 우리 협회와 업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 선임은 이재욱 평판문화 제일테이프 대표, 삼성아이앤디 방운덕 대표가 선임됐으며, 이사진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총 회원 323명 중 본인 참석 120명, 위임 42명으로 과반수 참석하여 성원을 충족했다.

인쇄연합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이사 2명 보선·고수곤·이충원 전임 회장 명예회장, 고문으로 추대



대한인쇄문화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래수, 이하 대한인쇄연합회)는 지난 2월 23일 호텔PJ 카라디움홀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박래수 회장은 “엄중했던 코로나 상황을 무사히 극복하여 2년 만에 대의원님들과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회라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해 새로 마련한 인쇄기준가격이 물정착되도록 인쇄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으로 △우리사 김충복 대표 △합동인쇄 장태권 대표 △우진디지탈 조정자 대표가 수상했다. 이어, 대한인쇄연합회장 표창으로 우수조합 부문에는 △전라북도인쇄정보협동조합이 수상했고 협동조합 육성 성공로 부문으로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양경 과장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유공 부문에서 △주식회사 노아 지춘성 대표이사에게 감사장 △동반성장위원회 도영호 전문위원 △한국제지연합회 성기태 본부장 △타라티피에스 김용민 본부장에겐 공로장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 보선, 감사 선임의 건 등 7개의 안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보선으로 장태권 전 울산·경남조합 이사장과 전준호 카오스넷근아 대표가 총회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연합회 이사로 선임됐고 임기가 만료된 감사 2명으로는 김문선 (주)동양인쇄사 대표와 김재선 미리픽 그래픽 대표가 선임됐다. 또한, 대한인쇄연합회 고수곤·이충원 전임 회장이 각각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추대됐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에 김기문 現 회장 연임

제61회 중기중앙회 정기총회, 364명 참석...만장일치 추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8(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7대 회장으로 김기문 現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김기문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협

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기문 회장은 제23·24대(2007년~2014년), 제26대(2019년~현재)에 이어 4번째 중기중앙회장직을 역임하게 됐으며, 2027년 2월까지 앞으로 4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주시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중기중앙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과 함께 비상임 부회장 5명과 비상임 이사 19명을 신규 선출했다.

한국제지, 소상공인과 함께 그린실드 친환경 프로모션 진행



한국제지는 이번 카페 프로모션을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지(대표 안재호)가 소상공인과 함께 친환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한국제지는 국내 최초로 재활용, 생분해되는 종이포장재 '그린실드(GreenShield)'를 개발하여 ESG 경영 확산에 기여했다.

대기업들의 경우 ESG 전담 부서 등이 있어 친환경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친환경 활동과 관련 제품에 관심이 많아도 비용 부담이나 구매 채널 연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제지는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 외에도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은 중소 카페들과 제휴 프로모션을 기획해 왔고, 그 결실로 을지로와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4개사에 '그린실드'로 만들어진 종이컵을 무상 협찬하며 친환경 활동 확산을 위해 앞장섰다.

아울러 한국제지는 카페에 친환경 그린실드 컵을 협찬하는 것 외에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채널도 함께 연계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실드'는 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재활용 인증(UL ECVIP 2485)과 생분해성 인증(OK Compost Industrial)을 획득하였고, 국내에서도 환경표지인증(EL606)을 획득했다.

또한, FSC(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통해 자연친화적 제품임을 인정받았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식품 안전성 인증을 통해 기존 식품 용기의 대체재로 사용 가능함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제지는 제지연합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구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전하며, 이번 프로모션을 계기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가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interpack(인터팩) 2023, 오는 5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

-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5.4~10.(7일) 간 개최
- 55개국 2,866개사가 참가하고, 169개국 17만여 명이 방문한 세계적인 포장 전시회
- 방문객 해외비중 74%로 글로벌 비즈니스 최적지
- 순환경제, 자원관리, 디지털기술, 제품 안전성 - 포장 업계 메가트렌드 집중 조명



세계 최대 포장산업전시회 interpack 2023(이하, 인터팩 2023)이 오는 5월 4일~10일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지난 전시회에 2,866개의 참가사와 17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인터팩 방문객의 해외비중은 74%에 달해 글로벌 비즈니스 최적지다.

코로나로 인해 6년 만에 개최되는 인터팩 2023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전시장 전 홀이 매진됐다. 올해 전시회에 포장기계, 소재를 비롯한 포장 산업 모든 분야의 리딩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주요 기업으로는 크로네스, I.M.A, GEA Group, 스토라엔소, 웨스트록, 실간 등이 있다.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자동화, 지속가능성

등 최첨단 패키징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순환경제, 자원관리, 디지털화 및 생산성 향상, 제품 안전성을 위한 새로



지난 '인터팩 2017'에는 약 170,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운 솔루션이 첫 선을 보이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인터팩은 국제 포장부품전시회 'components(이하, 컴포넌츠) 2023'과 함께 열린다. 컴포넌츠는 디지털화의 핵심 요소인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행사이다. 드라이브, 구동, 제어장치, 센서, 핸들링 기술, 소프트웨어 및 통신제품, 원료처리기술, 부품, 패키징 자동화 시스템 등이 전시된다. 컴포넌츠는 전시장 가운데에 위치한 18홀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포장기계협회 공동관으로 18개 업체가 참가한다. 개별 참가사는 흥아기연, 세종파마텍, 카운텍, 리팩, 백천기계, 농심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개별 28개사의 부스 배정이 완료됐다. 컴포넌츠 전시회에는 삼성하조기사가 참여한다. 국내 업체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포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터팩 전시회는 특별행사를 운영한다.



우수한 패키징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 7일 동안 7개의 주제를 다루는 'spotlight talks&trends' 포럼을 운영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품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스타트업존도 운영된다.

ESG시대에 친환경 소비가 대두되며 포장업계는 급격한 변화와 진화에 직면해 있다. 시장조사기관 IMARC에 따르면 글로벌 친환경 패키징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28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 음료, 베이커리, 제약, 화장품, 비식품 소비재, 공산품의 포장가공기술, 패키지 인쇄, 라벨링 등 미래지향적 포장 솔루션이 대거 선보인다.

인터팩은 코로나로 인해 6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전시구성을 대폭 개편했다. 종전의 기계, 소재 등의 분류방식이 아닌 식품, 제약, 화장품 등 분야별 구성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도입했다. 따라서 방대한 전시규모에도 방문객들은 효율적인 동선으로 관람 가능하다.

메가톤급 전시회인 만큼, 홈페이지에 수록된 참가사 명단을 방문 전에 살펴보면 매우 유용하다. 산업 분야, 국가, 제품 등으로 자세한 검색 및 설명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길찾기, 즐겨찾기 기능 등을 통해 방문객의 효율적 부스방문 동선을 제공한다. 이는 전시회 홈페이지 내 'Exhibitors & Products'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팩 방문 희망 시 공식 홈페이지 'interpack.com'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된다. 전시회 참가 및 참관 문의는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쉴(주)로 할 수 있다.



경영인을 위한 2023 경제 전망 ②

2023년 3대 경영환경 이슈

‘경영인을 위한 2023 경제 전망’ 연재 순서

- ① 2023년 국내외 경제 흐름
- ② 2023년 3대 경영환경 이슈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려는 글로벌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악재에 이어 경기침체란 늪에 빠질 처지에 놓였다. 이미 에너지 파동을 겪고 있는 유럽에 이어 미국이 내년 상반기 정책금리 인상의 후폭풍권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70년대 말 오일쇼크기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회복 이후 경로가 어떠할지 조망한다. 출처 : LG경영연구원

이슈 1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

올해에는 1분기에 주요국 금리인상이 종료되면서 달러 외 통화들의 가치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미국 대비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2분기에는 에너지 공급난 완화로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로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글로벌 긴축 상황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였던 엔화는 주요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올해에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4월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할 예정으로 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는 것도 엔화 회복세를 지지할 것이다. 위안화의 경우 제로코로나 정책의 사실상 폐기로 강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감염자 수가 크게 확대·축소되는 시기를 거치는 동안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차질 발생 가능성이 커 상반기 변동성이 큰 국면을 거쳐 하반기부터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해 상고하저의 강세 흐름을 따르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연중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원자재 등 수입단가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

성이 높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단가 회복도 연말까지 기대 어려워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주요국의 경기 침체 및 부진으로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 불안이 연중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도 본격화 되기 어려울 듯하다.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국내외 금리차가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산될 4분기 이후에야 원화 가치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다.

이슈 2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양상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수출입 제재와 관세장벽을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중 양국은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다. 특히 2021년에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과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두 가지 변화, 즉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대상이 최종재상품 중심에서 관련 장비, 기술, 인력 등으로 확대되었고, 미국이 독자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한국, 일본 등 믿을만한 우호국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도 올해 미·중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이다.

올해에는 미·중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징되는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에 유럽이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하면서 ‘경제전쟁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미·중 사이에서 소극적으로 중립 노선을 유지하던 주요 신흥경제권 국가들이 제조·시장·자원 경쟁력을 앞세워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EU와 주요 신흥국의 변화는 미국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 경제안보 관련 정책을 통해 보여 준 ‘미국 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크다. 대중 견제를 위해 우호국들과의 ‘신뢰 공급망’ 형성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는 미국의 ‘국내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시했고, 올해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슈 3 원자재 시장의 ‘뉴노멀’

그동안 가격 안정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수요와 산업을 보호하던 화석에너지 수출국 등이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편, 화석에너지 수입국들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의 보급을 서두르면서 관련 광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공급 조절과 수요 확대가 비가역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화석에너지와 핵심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장기화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은 비용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뉴노멀로 자리잡는 만큼 생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경제의 둔화 속도가 빠를 경우 가격이 잠시 하향 조정 되겠지만,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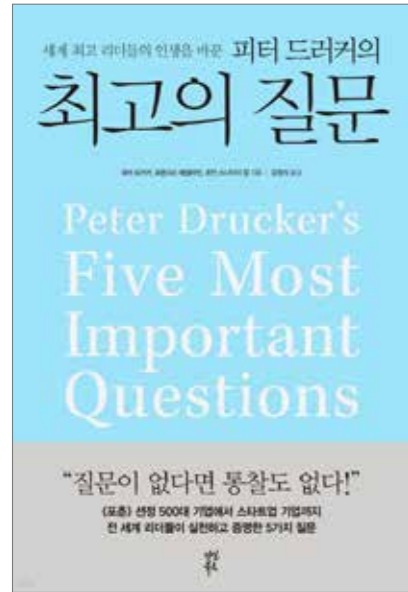
따라서 원자재 투입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원가 상승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비하는 한편, 원자재 사용 효율화와 재활용 확대, 적정 재고수준 검토,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등 뉴노멀에 걸맞은 장기 계획들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지난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예산 법안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증세 및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 수입을 늘려 시장에 풀린 유동성(화폐)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노골적인 세금감면 및 보조금 혜택 등으로 대한민국·유럽 등 우방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고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BOOK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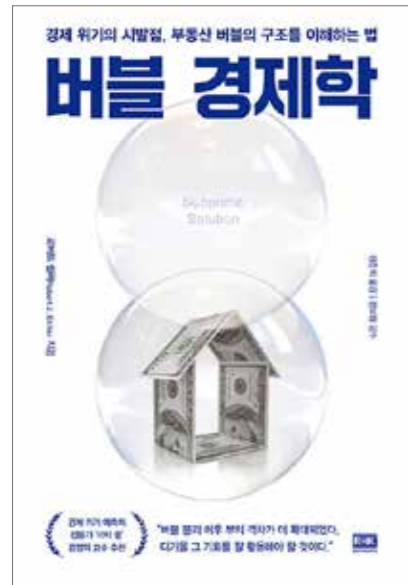


저자 : 피터 F. 드러커 외 2명
번역 : 유정식
출판사 : 다산북스

세계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다섯 개의 질문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길을 만들 것인가’ 고뇌하는 순간에 피터 드러커가 던지는 각각의 질문들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 현존하는 어떤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일, 사업, 프로젝트 앞에서 고뇌하고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인사이트를 전해준다. 이 책에는 필립 코틀러, 마셜 골드스미스, 짐 콜린스 등 세계적 경영 구루들과 GE,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의 리더들, 그리고 우버, 홀스티, 약속의 연필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을 일군 떠오르는 청년 리더들까지, 세계 최고 리더들 20인이 어떻게 ‘피터 드러커의 질문’으로 자신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는 실천 방법과 사례들이 담겨 있다.

[버블 경제학]



저자 : 로버트 실러
번역 : 정준희
출판사 : 알에이치코리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전하는
자산가격의 미래

『버블 경제학』은 2007년 미국 주택대출 시장의 위기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 지난 100년간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버블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버블이 형성되는 매커니즘의 근저에 사과의 ‘사회적 전염’ 현상이 있음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부동산 가격의 신화를 버블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실러 교수는 버블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금융의 성격을 띠는 단기적 대책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인프라를 정비하여 모두를 위한 금융 제도를 구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culture

동대문의 역사를 미디어아트로 만나다

<2023 서울라이트 DDP : 장소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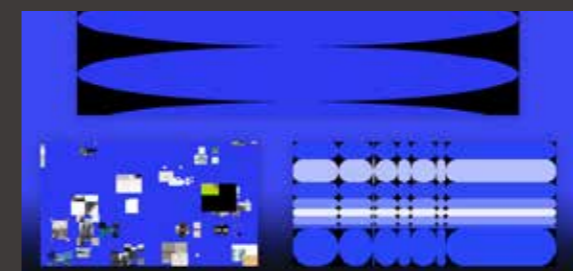
6월 30일(금)까지 DDP 1층 미디어아트갤러리에서



한양도성의 축조 때부터 서울의 역사와 문화 중심지였던 동대문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조선의 수도를 보호하던 '한양도성'과 정예군을 양성하던 '훈련도감', 광복 이후 수많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배출한 '동대문운동장', 한국적 빈티지의 모든 것을 사고 파는 '풍물시장', K-패션의 상징인 '패션상권', 그리고 문화 예술 디자인의 중심지인 DDP까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과거-현재-미래'가 순환하고 있는 '동대문'이라는 장소성을 디자인, 건축적 관점에서 해석해 미디어 프로젝션과 3D 디지털 아트로 표현했다. 심규하 · 김재 작가가 각각 '미디어아트갤러리'에서 선보일 프로젝트 매핑과 사운드 아트의 여정, 그리고 함지원 · 수퍼노멀 · 스튜디오아텍 작가가 '투명 미디어 월'에서 각기 선보이는 3D 디지털 아트에서는 모두 '동대문'이라는 장소성에 대한 작가들의 창의적 해석이 담겨있다.

전시 안내

전시 기간	2023.2.1.(수) ~ 2023.6.30.(금)
전시 장소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1층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 시간	오전 10시 ~ 오후 8시(휴관일 없음)
입 장 료	무료



[그래픽 프로젝트] 심규하



[한 점에서 빛으로 퍼지기까지] 김재



[빛의 여정] 함지원



[여행자] 수퍼노멀

종이로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연합지류유통과
함께 해요.



BY PAPER

WE CAN

LOVELY WORLD

우리의 삶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 가족친와 우수기업
- MAINBiz
경영혁신명 중소기업
- km3
ISO 9001
- km3
ISO 14001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 조달청
- FSC
FSC® 인증
FSC® C0C0000
-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창작디자인연구소
- 2019년
'아름다운 남세자상' 수상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일산 장형동 공장



일산 장형동 공장



충무로 공장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형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대표전화
02-2265-3100
unpaper@naver.com

특화된 제지 유통 서비스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경쟁력



uh (주)연합지류유통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6길 40(연합B/D)
 Fax: 02-2272-5775

SANG DONG HWA

당신의 고민!!
40년 노하우의 **상동화**가
해결합니다.

라벨, 플렉소, 제판, 패키징, CMS
고민이십니까?
진정한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40년의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를 선택하십시오!



t. 02) 2279-5621 www.sangdonghwa.com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1205호) | Fax: (02) 2277-7015 | www.sangdonghwa.co.kr | sdh5621@sdh5621.com

